

좌파 철학자는 어떻게 450조 기업 총수가 됐나

광화문·부

어수웅

논설위원



미국 주식시장에 큰 관심 없는 사람도 ‘팔란티어’라는 이름을 들어봤을 것이다. 테슬라·엔비디아와 함께 요즘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AI 빅데이터 기업. 2024년이 시작할 때 팔란티어 주가는 16.58달러였다. 지난 주말 종가는 137.3달러. 시가총액은 약 3240억 달러(약 445조원)로 미국 30위권 빅테크로 급성장했다. 1억을 투자했다면 1년 6개월도 안 돼 8억이 된 셈이니 사람들이 흥분할 수밖에. 하지만 그 이상으로 흥미로운 대목이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설계자 격인 피터 틸과 팔란티어를 공동 창업했고 현재 CEO인 엘릭스 카프(58)다.

컴퓨터 과파나 매끈한 MBA가 준비한 실리콘밸리에서 이 굵슴머리 CEO의 이력은 낯설다. 스탠퍼드 로스쿨을 다녔지만 로펌에 진절머리 내며 철학으로 진로를 바꿨고,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에서 하버마스에게 배우며 박사 학위를 땀다. 맞다. 당신이 알고 있는 그 하버마스. 신마르크스주의와 비판철학의 거장 말이다.

‘문송합니다(문과라서 죄송합니다)’라는 자조적 유머까지 등장한 대

한민국과 달리, 그는 문학·철학이 기업과 국가 발전의 뿌리임을 대륙적인 문장으로 설득해 왔다. 우선 기업 이름. ‘팔란티어’는 영미권 판타지 문학의 바이블 격인 ‘반지의 제왕’에서 가져왔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수정 구슬의 이름. 여담이지만, 팔란티어 출신들이 세운 AI 방산 기업 ‘안두릴’ 역시 그 소설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검의 이름이다. 미국 국가 안보에서 안두릴이 창이라면, 팔란티어는 방패인

팔란티어 CEO 엘릭스 카프
9·11 테러·중국 위협에 새 신념
“지적·도덕적 엘리트가 권력을”
우린 그런 꿈 가진 기업가 있나

셈이다. “시공을 뛰어넘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모든 것을 통찰하겠다”는 야심의 새 방패다.

앞서 언급한 놀라운 성장을 기록하고 주주들에게 보낸 25년 1분기 편지에서, 카프는 다시 고전 철학과 현대 문학을 인용한다.

하나는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수는 있습니다”(성 아우구스티누스), 또 하나는 “귀족은 그렇게 태어났다는 걸 제외하면 자신이 가진 권력의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 하지만 현대의 엘리트들은 그렇지 않다. 그들에겐 지적, 도덕적 우월

함이 있다”(프랑스 현대 소설가 미셸 우엘베크).

이 두 문장에 카프의 세계관과 정체성이 압축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비판 철학을 전공했던 좌파 철학자는 9·11 테러와 중국의 위협을 체감하며 기업은 미국의 안보에 우선 기여해야 한다는 신념의 소유자로 거듭났고, 이제 는 지적·도덕적 엘리트가 새로운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고 옥박지르지 않고 설명한다.

결과적으로 시총이 폭증했지만, 팔란티어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벌겠다는 기업이 아니다. 상반기인 2월 출간되자마자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자신의 책 ‘기술 공화국’에서 카프는 말한다. 실리콘밸리는 지금 탐욕의 중심이다. 미국의 안보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개인의 욕망과 사적 이익에 혈안이다. 중국의 위협이 현실이 된 상황에서 우리는 미국 국가 안보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팔란티어의 핵심 임무는 서양 특히 미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가로 만드는 것이다….

모두가 카프처럼 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런 신념과 철학을 지닌 기업가·창업가를 찾을 수 있나. 시대에 따라 요구되는 영웅은 변하는 법. 이제 는 이념과 진영을 넘어 문명 충돌의 시대다. 변화하는 세계에서 자신만의 언어로 대중을 설득할 수 있는, 우리만의 지적·도덕적 엘리트가 등장하는 모습 을 보고 싶다.

우정아의 아트 스토리 [587]

장육진의 나룻배

나룻배에 황소 한 마리와 책가방을 등에 진 학생을 태웠다. 뒤이어 닭 한 마리를 품에 안은 아낙, 큰 짐을 머리에 인 여인, 자전거를 꼭 짰은 까까머리 아이가 섰다. 수면이 너무 맑고 고요해서 배가 가기는 하는 건지 의문이지만, 황소부터 사공까지 하나같이 무심히 서서 바라보는 방향이 제각각 다른 걸 보면, 배는 무탈히 흐르는 모양이다. 한국적인 풍광과 정서를 꾸밈없이 단순하면서도 깊이 있고 명징하게 그려낸 화가 장육진(1917~1990)의 ‘나룻배’다.

황소나 자전거는 말할 것도 없고, 책가방과 닭, 그리고 보따리는 그 주인공에게는 돌도 없이 소중한 것들이다. 이들을 모두 태운 나룻배가 늘 그림처럼 한가롭고 평온하게 오가면 좋겠지만, 사실 장육진이 이 그림을 그린 건 1951년, 한국전쟁 중이었다. 충청남도 연기군에서 태어난 장육진은 어릴 때부터 그림에 남다른 재능을 보이다, 1936년 고등 보통학교 재학 시절 조선일보사에서 개최한 전국 학생미술대회에서 최고상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화가가 되기로 했다. 일본 유학까지 마치고 돌아와 해방을 맞이했지만, 그



장육진, 나룻배, 1951년, 나무판에 유채, 14.5×30cm, 자료 제공 (재)장육진미술문화재단.

시절 장육진의 그림은 어둡고 진중했다. 역설적으로 그의 색채가 오늘날 우리가 아는 장육진처럼 밝고 순수하며 그림 속 사람들이 어린이처럼 무해하고 천진하게 된 건, 전쟁이 일어난 다음이었다.

‘나룻배’는 사실 그가 1939년 고향 선산지기의 어린 딸을 그린 나무판의 뒷면에 그려졌다. 화가가 이 소녀상을 유독 아껴 피란 중에도 끌어안고 다니다가, 어느 날 그 뒷면에 나룻배와 사람들을 그린 것. 만약 그가 가장 소중한 무언가를 안고 배를 탄다면, 그의 품에는 이 그림이 있었을지 모른다. 나룻배는 그렇게 그 옛날의 소녀를 싣고 상상 속의 평화를 조용히 건너는 중이다.

포스텍 교수·서양미술사

社 説

64년 만의 민간 국방장관에 대한 기대와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국방장관 후보자로 민주당 5선인 안규백 의원을 지명했다. 비군인 출신인 안 후보자가 임명되면 5·16 이후 64년 만에 첫 문민 국방장관이 된다. 안 후보자는 2008년 의원 당선 이후 5선 내내 국회 국방위에 몸담았으며 국방위원장도 지냈다. 군과 국방부를 잘 아는 정치인으로 여야의 평판이 모두 좋은 합리적 인사다.

이 대통령은 대선 유세 때 “이제는 국방장관도 민간인으로 보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군 관련 공약에서도 ‘국방장관 문민화’를 가장 먼저 제시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군 출신들이 군 후배들의 부대를 동원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군에 대한 문민 통제가 성공적이라는 미국에선 전역한 지 7년이 돼야 국방장관을 맡을 수 있다. 그런데 한국에선 예편 1시간 만에 장관이 된 경우도 있었다. 민간인의 군 통제 경험이 사실상 없는 셈이다.

5·16 이후 국방장관 39명 전원이 장군 출신이다. 이 중 33명이 육군이다. 안보실장·국방장관·합참의장이 같은 사관학교 선후배인 적도 있었다. 학교별, 군종별, 근무지별 인연이 얽혀 군맥을 형성하고 요직을 차지하면 군 조직은 경직되고 혁신이 일어나기 어렵다. 제 식구끼리 챙기며 변화 요구에 둔감해지기 때문

국힘 주진우 의원이 총리 후보자인가

국민의힘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재산 관련 의혹에 대한 검증에 나서자 정부·여당이 국힘을 상대로 역공에 나서고 있다. 당 대표 선거에 나온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돌을 던져라”는 성경 문구를 인용하면서 “국민의힘은 선을 넘지 말라”고 말했다. 정청대 의원은 “저들은 벌써 김민석 흔들기로 이재명 정부를 쓰러뜨리려 한다”고 했다.

5년 전 마이너스 5억8000만원이던 김 후보자의 재산은 현재 2억1500만원으로 8억원 늘었지만 공개된 수입 내역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상식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청문회에서 해명이 필요하고 그 뒤 국민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민주당은 “너희는 깨닫구나” “정권 흔들기”라며 엉뚱한 역공을 한다. 지금 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하는 건가, 국민의힘 청문회를 하는 건가.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김 후보자 문제를 언급한 국힘 비대위원장에 게 “당신은 떠날 안 나올 것 같으나”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가 국가 경쟁력’ 시대, 이념 개입 안 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정기획위에 “고압 송전선 설치를 동의하는 주민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해 수익을 받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에너지 핵심 공약인 ‘햇빛·바람 연금’을 송배전망 확충에 활용하려는 것이다. 수조 원을 들인 삼척 화력발전소가 울조 개통 직후 멈출 정도로 곳곳에선 송배전망이 문제다. 송배전망 설치를 위한 주민 설득은 시급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원전 등에 비해 경제성·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태양광·풍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 우리는 이념에 경도된 잘못된 에너지 정책이 어떻게 나라에 해를 끼치는지 이미 경험했다.

지난 20일 이 대통령이 참석한 울산의 AI 데이터센터 준공식에서는 “전기가 국가 경쟁력”인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마존이 SK와 함께 울산에 7조원을 들여 짓기로 한 AI 데이터센터는 ‘AI 두뇌’이자 ‘AI 고속도로’에 비유된다. 이를 유지할 수 있었던 핵심 비결이 바로 인근에 복합 발전소 등 안정

이다. 문민 국방장관이 틀에 박힌 군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 혁신을 일으키고, 계엄으로 추락한 사기를 끌어올리기를 기대하는 국민이 많을 것이다.

그동안 군 출신이 국방장관을 맡은 것은 분단 상황과 무관치 않다. 국방장관은 군 인사·행정권뿐 아니라 작전 지휘권도 갖고 있다. 유사시 합참의장과 육·해·공 참모총장을 지휘해야 한다.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를 오래 경험해 군 내부를 잘 안다고 해도 군 작전을 잘 알 수는 없다. 부대를 직접 지휘·통솔한 경험도 없다. 지금 국군은 핵으로 무장한 북한군 110만명과 대치하고 있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공격 등 북 도발도 끊임없다. 일반 국민으로서 군 경험이 없는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걱정도 할 수밖에 없다.

문민 국방장관이 임명되면 군 작전에 대해선 합참의장의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군사적 위기 때 작전을 잘 모르는 국방장관이 고집을 부리거나 정치적 영향을 받아 지휘권을 휘두르면 재앙이 될 수도 있다. 미국처럼 문민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간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 안 장관 후보자가 우리 군을 막강한 전문 집단으로 탈바꿈시켜 군의 문민 통제가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게 되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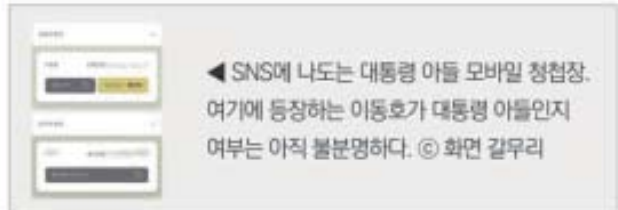
민주당은 김 후보자 의혹을 검증하고 있는 국힘 주진우 의원에 대해선 그의 재산은 물론 20대 아들의 재산 의혹까지 제기했다. 민주당은 주 의원 부친의 검사 경력까지 비난하고 있다. 인사 검증을 받는 사람들이 검증하는 청문위원을 검증하겠다고 겁박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주진우 의원이 총리 후보자인가. 민주당은 검찰이 김 후보자 재산 관련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하자 “검찰의 최후 난동”이라고 했다. 고발 사건에서 배당은 기계적 절차이며 안 하면 그게 직무 유이다. 이제 검찰 인사권까지 쥔 집권당이 마치 검찰 탄압을 받는 약자처럼 행세한다.

민주당은 대통령 권력에 더해 입법부에서 200석 가까운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입법도, 인사도, 예산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역대 최강 권력이다. 친명 일색이라서 내부 견제도 없다. 이런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약점이 조금만 드러나면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맹비난하며 달려든다. 야당일 때는 야당이어서 그랬다고 해도, 이제 막강한 집권당이 된 만큼 보다 성숙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 아들 결혼식

축의금 계좌 버젓이 나돌았다 ... 아들 계좌 맞아? 얼마나 들어왔나?

김영란법 위반 여부 조사하라 — 대통령부터 솔선수범 해야 — 아들 계좌 맞다면, 입금내역 따져봐야



[면접자 주] 나경원 의원(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을 직격했다. 아들 결혼식을 비공개로 한다고 했지만, 모바일 청첩장이 SNS에 공개되어 나도는 것을 비판한 것.

이재명 대통령 아들 이동호 씨의 청첩장이라는 모바일 청첩장에 일반인처럼 신랑신부 축 축의금 계좌가 보인다. 이동호 씨는 대통령 아들인 특별한 일반인이다.

개달들의 환호와 축의금 러시가 있을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대통령 아들 명의의 계좌번호가 만천하에 알려졌으니, 고인이 컸을 사람들도 많았을 듯.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물론, 국회의원을 꿈꾸는 정치 지방생들은 머리를 한참 굴렸을 것. 특히 대기업 오너와 공기업 기관장들의 고뇌가 컸을 것.

김영란법의 경조사비 상한액은 5만원. 누구도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자. 1천 명이 축의금을 넣었다면 5천

만원, 2천 명이 송금하면 1억. 금급하다. ① 나도는 모바일 청첩장은 진짜인가, 가짜인가? ② 모바일 청첩장에 나온 이동호 씨 명의의 계좌번호는 사실인가? ③ 물의가 일자 잠시 계좌를 닫았는데, 아니면 계속 열려두었는가? ④ 이동호 씨 결혼식 축의금이 김영란법 대상 여부? ⑤ 입금된 축의금 액수는 얼마나 되는가?

6월 20일 오전에 청첩장 계좌로 1원을 송금해 보았다. 계좌 명의는 이동호로 나오고 송금도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물론 그 계좌 주인 이동호가 대통령 아들인지 확인이 불가능하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의 조사를 촉구했다. 진실이 무엇인지, 그것이 금급하다. 다음은 나경원 의원의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모든 제목과 본문 내 하이라이트는 뉴데일리의 편집이다.

그들만의 위선

어제 이재명 대통령 장남 결혼식이 있었다고 한다. 비공

개 결혼식이라고 홍보하지만, 날짜와 장소, 축의금을 받을 계좌번호까지 모든 것이 공공연히 알려져 있었다.

여당 국회의원들도 모두 초대했다. 소년공 시절 친구까지 초대했다며 미화된 정보를 포장·선전한다. 이게 무슨 비공개 결혼식인가.

잔인한 권력 행사를 염포한 대통령, 거대 여당 체제의 무소불위 권력의 대통령의 자녀 계좌번호가 알려진 결혼식에 공공과 민간 곳곳에서 축의금을 보내지 않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공직의 모범과 기준이 돼야 할 대통령의 처신이라 할 수 있을까. **그들만의 위선의 실체**에 국민은 분노한다.

위선과 거짓이 흘러넘친다

위선과 거짓은 이재명 정권의 DNA. 코드다. **맑은 정의**를 외치지만, **실상은 사익과 기만**이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역시 그 전형이다. 겉으로는 반미주의 선행에서 전과 기록을 훈장처럼 여기면서, 정작 자신은 미국에서 수학하고, 자녀도 미국 유학, 반미를 외치지만, 자녀 유학은 미국!

특목고-자사고 폐지, 평준화를 외치지만, 나의 자녀는 특목고-자사고-해외 명문 교육! **문제인 정권 임종석** 비서실장, 좌파 교육감들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의 위선적 작태와 판박이다.

그들만의 선민특권카르텔

국민들은 가계, 봉여, 개구리 운운하며 하향평준화 시키고, 자신과 자녀들은 특권의 사다리로 올려보낸다.

이재명 정부의 가면을 찢고 민낯을 직시해야한다. 겉은 좋은 말로 포장하지만, 실체는 **▲위선 ▲무능력 ▲불공정** 그 자체다.

그들만의 **(선민특권카르텔)**을 공고히 쌓는다. **문제인** 정권보다 더욱 교묘하고 노골적인 방식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울 동작을 / 3선)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2025년 6월 20일 게재 되었습니다.

